



베트남 국가불교의 구조와 한국 불교학의 공백

윤대영 지음, 『베트남의 불교』(아카넷, 2025)을 읽고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I. 베트남 불교 연구 공백의 학문사적 함의와 본서의 위치 재정립

베트남 불교사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양 영역이 교차하는 특수한 종교 지형 속에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국 불교학의 연구 범위 밖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불교학의 연구 경향 자체가 특정 지역과 문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아시아 불교 전체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베트남 불교는 대승·선종·민간 신앙·해상불교가 중첩되는 복합적 체계를 지니며, 지역 정치권력과 종교제도가 밀접하게 얹혀 있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불교만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연구 방식으로는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출간된 윤대영의 『베트남의 불교: 기원과 변천 그리고 리 왕조』(아카넷, 2025)는 초기 전래부터 리(Lý) 왕조 말기까지의 전개를 사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본격적 베트남 불교사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사적 위치를 갖는다. 이 책은 베트남 불교 전개의 기원, 초기 사찰의 역할, 지역 권력과 승단의 상호작용, 국가불교 체제의 성립과 변동, 왕권과 불교 권위의 결합, 그리고 리 왕조 말기의 균열과 붕괴 등 중요한 쟁점을 연대기적으로 제

시함으로써, 그동안 단편적 또는 추정적으로만 파악되던 베트남 불교사의 구조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학계가 베트남 불교를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본 서평의 목적은 이 책이 제시한 서술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보다 분석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재검토하는 데 있다. 특히 본서는 사료 중심의 해석을 통해 베트남 불교사의 주요 사실을 충실히 재구성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놓여 있는 국가불교 형성 과정, 사찰의 사회적·경제적 기능, 왕권의 종교적 정당화 논리, 승단의 권력화 메커니즘, 불교·정치 관계의 장기적 구조 등을 이론적으로 더 확장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서평은 본서의 장별 주제를 따라가되, 각 장의 사료적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조적 의미를 분석적·비판적 관점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이후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 먼저 II장에서는 본서의 각 장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검토하여 베트남 불교사의 구조적 특징을 도출한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주석·참고문헌·부록·색인 등 자료 체계의 완성도를 평가하여 본서가 구축한 자료적 토대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IV장은 한국 불교학계의 베트남·동남아 불교 연구 부진의 구조적 요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V장은 향후 베트남 불교 연구가 나아가야 할 인력·방법론·주제적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베트남 불교 연구가 한국 불교학 전체에 제기하는 새로운 학문적 요청을 정리하면서 글을 맺는다.

II. 저서 분석: 베트남 불교사의 전개와 리 왕조 국가불교 체제의 형성

I장에서는 베트남 불교 연구의 학문사적 공백과 본서가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본서가 어떤 방식으로 베트남 불교의 역사적 전개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장에서는 저서의 장별 내용을 분석하며, 베트남 불교사의 형성과 변동을 연대기적으로 검토한다.

1. 불교의 도래: 북속 시기(1~6세기)

제1장은 베트남 불교의 기원을 둘러싼 기존 연구의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저자가 제시하는 다중 기원 모델을 통해 초기 불교의 전래와 확산을 복합적·입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장에서의 핵심 성과는 베트남 불교가 한 가지 통로로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인도·해상교역망·중앙아시아·중국 남부의 불교 네트워크·토착 신앙의 수용 체계가 서로 겹쳐 복합적 신앙 지형을 형성했다는 점을 사료 분석을 통해 실증한다는 데 있다.

또한 제1장은 초기 베트남 사회가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여러 지역 세력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에, 불교가 정치권력의 후원 아래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지역 공동체 속에 뿌리내리기 쉬운 환경을 지녔음을 설명한다.

비판적으로 보면, 저자는 초기 불교 전래 경로의 다층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 하지만, 고고학 자료의 종합적 분석이나 중국 남부 이외 불교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보다 강하게 제시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 장은 베트남 불교 기원 연구의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취이다.

2. 불교의 확장: 구법승과 선불교(6~9세기)

제2장은 6~9세기 사이 베트남 불교가 본격적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며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시기를 다룬다. 특히 해양 교역로를 이용한 구법승(求法僧)의 인도 왕래, 그리고 중국 남방에서 유입된 선불교(禪佛教)의 정착이라는 두 흐름이 서술의 핵심을 이룬다.

우선 이 시기의 불교 확장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활발한 이동에서 그 출발점을 찾는다. 본서는 베트남 승려들이 인도, 스리랑카 일대 항구 도시로 직접 이동하여 경전을 구하고 새로운 불교 전통을 배우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이들은 단순한 단기 순례자가 아니라, 장기간 체류하면서 경전 학습·번역·불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실질적 교류자였다. 특히 당대 자료에 언급

된 여러 베트남 출신 구법승들의 이동 기록은, 베트남 불교가 일찍부터 국제적 네트워크의 일부였음을 입증한다.

해양 구법승들이 남긴 발자취는 곧 교학의 지평 확대로 이어졌다. 인도와 남방 지역에서 받아온 불교 사상, 의례, 수행 방식은 기존 북방계 불교와 결합하여 이 시기 베트남 불교의 다양성을 강화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개는 선불교의 등장과 확립이다. 6~9세기 사이 베트남에 중국 남방의 선 계통이 들어와 독자적 지도자층과 수행 공동체를 형성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종합하면 제2장은 베트남 불교가 해양 교역·국제 교류·선불교 도입이라는 세 가지 동력을 통해 기존 북속(北屬) 시대의 종속적·수동적 모습에서 벗어나, 자체적 성장과 지역적 특성을 갖춘 불교 전통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 시기는 베트남 불교사가 이후 국가 형성 단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갖게 되는 중요한 준비기이자 전환기로 평가된다.

본서는 구법승의 활동과 선불교의 등장을 사료 중심으로 충실히 정리하지만, 해상 교역망·지역권력 구조 등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은 충분히 분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초기 불교 확산의 실증적 기반을 제시한 점은 중요한 학술적 기여로 평가된다.

3. 불교의 약진: 독립 이후 초기(10세기)

제3장은 10세기 독립 이후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사회의 핵심 세력으로 약진하게 되었는지를 밀도 있게 설명한다. 응오 왕조(Ngô, 939~944)는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독립 왕조를 열었으나 정치적 기반이 약하여 불안정한 통치가 이어졌고, 이어진 십이사군의 난(945~966)에서는 지역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며 국가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불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찰 조직과 승려 집단의 지적·윤리적 권위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각 지역의 세력들은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필요로 하여 승려들을 후원하거나 사찰의 상징적 힘을 정치적 정당화에 활용하였다. 딘 왕조(Dinh, 968~980)가 등장하여 호아르를 중심지로 삼자 불

교는 왕조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요소로 더욱 부각되었고, 왕실은 사찰 건립과 승려 후원을 통해 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사찰은 지방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상징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이어지는 초기 레 왕조(Tiên Lê, 980~1009) 역시 호아르를 정치 중심지로 삼아 불교를 중요한 통치 자원으로 활용했고, 승려들은 왕권의 자문에 참여하거나 의례를 주관하는 등 정치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처럼 10세기의 베트남은 잦은 왕조 교체와 지역 분열로 인해 중앙 권력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시기였지만, 불교는 지방세력과 왕권 사이에서 사회적 안정과 통치의 상징적 정당성을 제공하며 독립국가 초기의 기반을 지탱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서는 독립 이후 불교가 정치·사회적 질서 재편에 기여한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만, 혼란기 권력 구조와 불교의 역할 사이의 인과관계는 좀 더 이론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불교가 지방 통합 기능을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에 대한 사회사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럼에도 이 장은 독립국 초기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사료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 불교 위에 세운 국가: 리왕조의 창건과 리타이또 시기(1009~1028)

리 왕조(李朝, Lý dynasty)의 성립은 베트남 불교사에서 정치와 종교가 본격적으로 결합되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왕조를 열었던 리 타이또(Lý Thái Tổ, Lý Công Uẩn)는 승려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군사·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였고, 그의 즉위 과정에는 불교 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즉위 직후 수도를 탕롱(Thăng Long, 하노이)으로 천도하여 새로운 국가적 질서를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불교는 왕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 리 왕조는 왕사제도를 도입하여 승려를 정치 자문역으로 임명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찰 건립을 확대함으로써 불교를 국가 운영의 중심에 놓았다. 승려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국가적 행사, 군사적 안정을 기원하는 의례, 백성 교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통치 체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 시기 사찰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국

가 재정으로 건립된 사찰들은 단순한 신앙 공간을 넘어 지역 행정과 사회 통합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고, 왕실도 사찰에 토지를 하사하며 승단의 경제 기반을 강화했다. 불교 경전의 유통과 번역도 활발해졌고, 특히 중국 불교의 다양한 문헌이 베트남에서 널리 읽히며 리 왕조 불교 문화의 정신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민간 신앙과 불교는 긴밀하게 결합되었으며, 베트남 고유의 정령 신앙과 불교적 세계관이 혼합된 형태의 종교적 실천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혼합적 신앙 구조는 리 왕조의 통치 전략과 맞물리며 백성들에게 안정과 친숙한 종교적 질서를 제공했다.

본서는 리 왕조 성립 과정에서 불교가 수행한 제도적 역할을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제시하지만, 불교와 왕권이 결합하게 된 구조적 이유는 상대적으로 간략히 다뤄진다. 또한 민간신앙과 불교의 상호작용이 국가 권력 형성과 어떤 상징적 효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 보완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초기 국가불교의 제도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복원한 점은 본서의 중요한 공헌이다.

5. 불교의 주재자: 리타이뚱 시기(1028~1054)

리타이뚱(Lý Thái Tông) 시기는 리 왕조 불교사에서 국가가 불교를 실질적 통치 자원으로 활용한 단계로 평가된다. 왕위에 오른 리타이뚱은 즉위 직후 왕권 기반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으며, 여러 사찰을 중수하고 신앙 활동을 장려하였다. 그는 즉위 후에 경전 결집, 사찰 재건, 고승과의 교유 등을 통해 불교를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삼았다. 또한 당시 여러 승려들이 왕의 측근으로서 자문역할을 수행하였고, 왕은 주요 국가의례를 불교적 방식으로 진행하여 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리타이뚱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왕이 직접 설법하거나 추모 계송을 지어 불교적 세계관을 정치적 언어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그는 불교적 자비와 갖가지 공덕을 정치 운영의 원리로 제시하면서 왕권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이는 국가 의례와 재난 극복 기원의 불교 의식 강화로 이어졌다. 본서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시기는 불교가 왕권의 중심적 상징체계로 작동하고 국가 질서의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 사찰 수의 증가와 승려층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왕 중심의 행정력과 충돌할 여지도 있었으며, 이 점은 이후 리 왕조의 역사 전개 속에서 문제로 되는 배경이 된다.

요약하자면, 리타이뚱 시기는 불교가 국가 운영의 핵심 규범이자 정치적 상징 체계로 자리 잡는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서는 리타이뚱 시기 국가적 차원의 불교 후원과 왕권 신성화의 양상을 충실히 기술하지만, 사찰경제 확대가 국가재정과 권력 구조에 미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왕권의 종교적 재현 전략과 정치적 통합 효과 사이의 인과적 관계도 다소 서술적 차원에 머무른다. 그럼에도 이 장은 리 왕조 중기 불교정책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6. 불교정책의 계승: 리타인뚱 시기(1054~1072)

리타인뚱(Lý Thánh Tông) 시기는 전대 군주 리타이뚱이 구축한 국가불교 체제가 안정적으로 계승된 시기로, 왕권은 불교의 종교적 권위를 통치 기반으로 삼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불교를 국가 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유지하며 왕실과 불교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황제의 배우자 관음녀와 공주출신 비구니 지에우년의 예를 통해서 불교에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했다.

승단 운영과 사찰 관리 역시 전대의 체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승려들은 국가적 의례와 사회적 행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사찰은 지역 사회의 경제·의례·교육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 통합의 거점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왕실은 주요 사찰의 중창과 불교 행사 후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갔으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경전이 꾸준히 유입됨으로써 승단의 학문 활동과 사찰의 문화적 위상 또한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불교가 단순한 신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통합과 문화 발전을 이끄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사찰경제의 지속적 확대는 잠재적 문제로 남아 있었다. 비록 리타인뚱 시기 전체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사찰의 토지 보유 증가와 지방 권력과의 결합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국가 행정력과 긴장 관계를 형성할 여지를 품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후대 유교사관이 “백성의 힘을 지치게 해서 보천사의 탑을 쌓았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본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료를 통해 이 시기 불교가 이미 상당한 사회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리타인뚱 시기의 불교정책은 전대의 틀을 견고하게 계승하면서 국가불교 체제를 더욱 안정된 제도 형태로 정착시켰으나, 동시에 이후 리 왕조 후기에 드러나게 될 구조적 긴장의 씨앗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본서는 리타인뚱의 불교정책 계승과 종교적 후원을 분명히 제시하지만, 이 시기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이 장은 리 왕조 중기의 종교정책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데 핵심적 자료를 제공한다.

7. 지원과 반란: 리년뚱 시기(1072~1128)

리년뚱(Lý Nhân Tông) 시기는 리 왕조 국가불교 체제가 여전히 국가 운영의 핵심적 상징 기제로 작동하던 시기였다. 그는 선대 국왕들의 전통을 계승해 대규모 법회와 불교 의례를 빈번히 개최하고, 사찰·탑의 중창과 불사 후원을 지속하며 불교를 왕실 정통성의 상징적 기반으로 유지했다. 재난 극복, 국태민안 기원을 위한 의례가 반복되었다는 기록은 불교가 여전히 국가의 정신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동시에 유교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전환점이기도 하다. 리년뚱은 과거제 정비, 유학 교육 장려, 문서 행정 개선 등 유교적 문치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실질적 기반을 불교 중심의 상징정치에서 유교적 행정국가로 점진적으로 이행시키려 했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왕실의 후원을 유지하면서도 사찰 경제 활동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등 제약과 조정의 흐름을 경험하게 된다. 주요 고승들은 지속적으로 왕실과 국가 의례에 참여했지만, 승단 전체의 자율성은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비판적으로 보면, 본서는 리년뚱 시기의 불교 후원과 유교 제도 도입을 충실히 서술하고 있으나, 두 체계가 충돌하거나 조정되며 국가 권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유교화 정책

이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국가불교 체제의 기반 자체를 재구성하는 이행기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충분히 심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본서의 기술은 리년동 시기가 불교적 상징 통치와 유교적 행정 체제가 공존하던 복합적 국면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적 근거를 제공한다.

8. 황제로 환생한 승려: 리턴동 시기(1128~1138)

제8장은 베트남 불교사 전체를 통틀어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승려 출신 왕 리턴동(Lý Thân Tông)의 즉위를 다루고 있다. 본서가 주목하듯, 승려가 정식 군주로 즉위한 사례는 주변국의 불교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나 우연적 사건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리왕조가 오랜 기간 구축해온 국가불교의 정치신학적 구조가 통치 체제 전체를 압도할 만큼 비대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가불교 체제는 왕권의 정당성을 불교적 덕성과 수행에서 찾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불교 수행의 권위가 점차 세속 정치 권위를 대체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승려 출신 왕의 즉위는 바로 이 불교 중심 통치 구조의 극단적 결과이며, 종교적 권위가 정치적 권위를 넘어서기 시작한 역사적 변곡점으로 이해된다.

본서에서는 리턴동이 어떤 정치적·종교적 배경 속에서 즉위했는지를 충실히 서술하고, 그의 즉위가 동시대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의 즉위가 의미하는 정치 체제의 구조적 변화, 즉 국가불교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잠식했는지, 왕권이 종교적 수행의 언어로만 정당화되는 체제가 어떤 위험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않는다. 본 서평은, 승려의 즉위가 국가불교의 자율성과 비대화가 통치 기제를 압도한 결과이며, 이는 리 왕조 국가불교 체제가 사실상 제어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한다. 불교적 권위가 국가 운영의 합리적·세속적 기반을 잠식했을 때 나타나는 정치적 위기의 전형적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9. 호국법회의 개최: 리아인똥 시기(1138~1175)

리턴똥의 즉위를 지나 리아인똥(Lý Anh Tông) 시기에 들어서면, 국가가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이 불교적 의례에 더욱 의존하는 형태로 제도화되기 시작 한다. 본서는 이러한 변화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호국법회(護國法會)’의 정착을 설명한다. 호국법회는 문자 그대로 국가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진 불교적 국가 행사로, 사회적 혼란·외적 침입·자연재해·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위기 상황을 종교적 의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적 상징 행동이었다. 이는 단순한 기원 의식이 아니라, 국가가 행정력·군사력·경제력 등 실질적인 통치 역량에서 난관에 봉착했음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본 서평은 호국법회를 국가불교 체제가 정치적 위기를 ‘상징정치(symbolic politics)’로 치환해 해결하려 했던 시도로 해석한다.

10. 승려 타락과 리 왕조의 몰락: 리까오똥 시기(1175~1210)

리까오똥 시기에는 후대 사료에서 흔히 언급되는 승단의 타락과 사찰경제의 비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서는 승려들의 세속화와 도덕적 해이 등을 의미 있는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생생하게 복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이나 종교적 도덕성의 붕괴로만 이해할 수 없는 복합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사찰경제는 토지 소유 확대, 노비 확보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지방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는 승단이 지역 권력과 결탁해 사실상 독립적 지배 세력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는 이를 통제할 충분한 행정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사찰경제와 중앙 권력 간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었다.

본서가 승단 타락의 사례를 충실히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국가의 재정 구조, 지방 지배 체제, 왕권의 위상에 어떤 구조적 타격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극히 제한적이다. 본 서평은 이를 보완하여, 리 왕조의 붕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불교 체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모순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사찰경

제의 비대화는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을 압도하는 전형적 현상이었으며, 이는 결국 왕조가 정상적인 통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

11. 승려가 된 황제: 리후에뚱 시기(1210~1224)와 리찌에우호앙 시기(1224~1225)

리후에뚱(Lý Huệ Tông) 왕의 출가는 리 왕조 국가불교 체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왕이 통치권을 포기하고 승려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국가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균열이 깊어졌으며, 왕권과 국가불교가 지탱하던 정치신학적 정당성의 기반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본서는 이 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왕권의 급격한 약화를 설명하지만, 그 구조적 의미를 충분히 이론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 시기 귀족 세력, 지방 호족, 사찰 권력 간의 갈등은 극도로 복잡해졌고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 단계에 들어섰다. 왕이 승려가 되는 선택을 할 정도로 정치 체제는 붕괴 직전에 있었고, 왕실 내부의 혼란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어린 나이에 즉위한 리찌에우호앙(Lý Chiêu Hoàng)을 거쳐 결국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며, 진 왕조(陳朝, Trần dynasty)의 성립으로 귀결된다. 본 서평은 리후에뚱의 출가를 단순한 개인적 종교 선택이 아니라, 국가불교 체제가 오랫동안 누적해온 구조적 모순—불교적 권위에 대한 과도한 의존, 사찰경제의 비대화, 중앙 권력의 약화, 정치신학적 정당성의 붕괴—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한다.

III. 자료학적 기초의 구축: 사료·주석·참고문헌 체계의 학문적 의의

본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베트남 불교사의 구조가 일정하게 드러났다면, 이를 가능하게 한 사료·주석·자료 체계의 성격을 평가하는 일 역시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III장에서는 본서가 구축한 자료학적 기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연

구의 신뢰도와 학문적 기여를 분석한다.

본서의 자료학적 성과는 내용 분석에서 드러나는 서술의 밀도뿐 아니라, 사료 정리와 학술 장치의 완성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책은 단순히 베트남 불교사의 한 시기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베트남 불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자료 구조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학적 의미를 지닌다.

우선 주석의 정밀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저자는 베트남어 사료와 한문 사료를 균형 있게 활용하며, 각 사료의 출처를 명확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인용된 원문은 사실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독자가 본문의 서술을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해당 사료를 다시 추적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주석 방식은 불교학계의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며, 후속 연구자가 같은 사료를 토대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다는 점에서 자료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의 구성 역시 매우 방대하고 체계적이다. 저자는 베트남 내의 현지 연구 성과뿐 아니라, 중국 불교사 연구, 프랑스 식민지기 학계의 인도차이나 연구, 일본 불교학자들의 동남아 불교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권의 문헌을 폭넓게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이 참고문헌 목록은 베트남 불교 연구가 단일한 학문 전통 안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여러 제국과 식민지의 역사, 다양한 언어와 학문 풍토가 중첩된 장(場)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부록의 자료는 단순한 보조적 첨부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성을 지니고 있다. 승려와 사찰 목록은 특정 인물이나 사찰이 어떤 시기와 맥락에서 활동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돋는다. 경전 전래표는 어떤 경전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수용되었는지, 그 전래 양상을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부록 덕분에 후속 연구자는 개별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베트남 불교사의 기본 구조를 빠르게 조망할 수 있고, 사건·인물·사찰·경전 사이의 연관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출발점을 갖게 된다.

찾아보기 또한 이 책의 자료학적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이다. 인명과 지명, 사

찰명 등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독자는 특정 왕, 승려, 사찰, 지역을 중심으로 본문 전반을 가로지르며 관련 내용을 추적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지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료에 관한 설명의 밀도가 다소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책이 베트남 불교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기초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적 아쉬움은 오히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IV. 한국 불교학계의 동남아·베트남 연구 부재의 구조적 원인

이처럼 본서가 베트남 불교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 구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학계가 왜 오랜 기간 베트남 불교를 연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 제IV장에서는 한국 불교학의 제도적·언어적·이론적 한계를 중심으로 베트남 불교 연구 부재의 구조적 원인을 검토한다.

한국 불교학계에서 베트남 불교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학자 개인의 관심 부족이 아니라, 연구 체계와 제도적 기반 자체가 구조적으로 미비했기 때문이다. 언어 장벽은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베트남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베트남어·쓰놈·한문의 삼중 언어체계는 현재 한국 학계가 갖춘 교육·연구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베트남 불교 연구는 현지 사료와의 접촉이 필수적임에도, 한국 학계는 베트남 사료 접근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

역사적·문화적 교류의 부재 역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중요한 요인이다. 한·중·일 불교 교류 연구는 오랜 전통을 갖지만, 베트남과의 교류는 기록상 거의 나타나지 않아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학문 제도의 측면에서도 한국 대학원 과정에서 베트남 불교를 다룰 수 있는 전공 트랙이나 정규 강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학자 양성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한국 불교학계는 동북아 중심주의적 인식 틀 속에서 발전해 왔다. “동아시아 불교”라는 개념 자체가 한중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베트남 불교의 혼종성—남방 불교·대승 불교·토착 신앙이 교차하는 복합 종교 구조—은 기존 분석 틀로는 포착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한국 불교학계에는 베트남 불교 연구 자체가 제도적·학문적·인력적 측면 모두에서 준비되지 않은 공백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윤대영의 『베트남의 불교: 기원과 변천 그리고 리 왕조』가 한국 학계에서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연구 선행이 아니라, 연구 공백을 가시화하고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어젖힌 선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V. 베트남 불교 연구의 향후 과제와 학문적 확장 가능성

한국 불교학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한 이상, 향후 베트남 불교 연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제이다. 제V장에서는 한국 불교학계가 구축해야 할 연구 인프라와 방법론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베트남 불교 연구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불교학계가 베트남 불교 연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베트남어, 쯔놈, 한문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연구자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언어 능력은 베트남 불교 연구의 기초이며, 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은 향후 연구의 지속성과 확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베트남 불교사를 단순한 통사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사·경제사·정치신학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사찰경제의 구조, 승속 관계의 변동, 정치적 정당성의 구축 과정, 지역 권력과 승단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본서의 실증적 성과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다.

현대 베트남 불교에 대한 연구 역시 절실하다. 진 왕조의 선종 체제, 응우옌 왕조의 관불 체제, 프랑스 식민기와 공화국 시기의 불교운동, 사회주의 국가 체제 아래에서의 종교 정책,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의 불교 역할 등은 아직 한국 학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베트남 현대불교는 사회운동, 정치운

동, 국가종교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동아시아 대승불교와 동남아 해상 불교가 만나는 경계 종교권이므로,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교 불교학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과 남방 불교의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독특한 혼종성을 지니므로, 기존 동아시아 불교 연구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제공한다.

VI. 베트남 불교 연구가 제기하는 학문적 전환과 비교불교학의 재구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 베트남 불교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한국 불교학뿐 아니라 비교불교학 전체에 어떤 학문적 전환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함으로써, 이 글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대영의 『베트남의 불교: 기원과 변천 그리고 리 왕조』는 단순히 한국 불교학의 빈틈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베트남 불교가 보여주는 국가·종교 관계, 승단과 지방 권력의 상호작용, 사찰경제의 사회적 확장, 왕권의 정치 신학적 전유(轉有) 등 복합적 구조를 통해 한국 불교학계가 그동안 설정해 왔던 분석 범주들을 다시 점검하도록 요청한다. 즉, 베트남 불교 연구는 한국 불교학이 지닌 지리적·문화적·사상사적 고정관념을 벗어나, 보다 넓은 “아시아 불교의 전체성”을 탐구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저서는 베트남 불교사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학계가 베트남 불교뿐만 아니라 동남아 불교 전반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방법론적 조건들을 드리낸다. 베트남 불교가 지닌 혼종적 종교 구조, 해상교역 네트워크를 통한 전래 과정, 국가권력과 종교권위의 상호구성적 관계 등은 기존 동북아 불교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며, 이 책은 이러한 주제들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서는 한국 불교학계가 교학 중심, 문헌 중심, 개별 국가 중심의 기존

연구 방식을 넘어설 필요성을 제기한다. 베트남 사례는 불교가 사회·경제·정치 구조와 깊이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연구는 반드시 사회사·정치신학·종교경제학 등의 다학제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의 불교: 기원과 변천 그리고 리 왕조』는 단순한 국가불교사 연구가 아니라, 한국 불교학이 새로운 연구 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학문적 전환점이라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베트남 불교사라는 한 지역의 역사를 복원한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불교학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동남아 불교 연구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향후 한국 불교 학계가 이 책을 토대로 보다 확장된 아시아 불교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면, 비로소 한국 불교학은 지리적·사상적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비교불교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불교: 기원과 변천 그리고 리 왕조』는 그러한 장기적 학문적 전환의 출발점이자, 그 가능성을 제시한 기념비적 저작이다.

투고일: 2025년 11월 22일 |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2일

참고문헌

- 유인선. 1984. 『베트남사』. 대우학술총서 제8권. 서울: 민음사.
- Cawley, Kevin N. 2023. *East Asian Buddhism and Korea's Transnational Interactions and Influences*. Switzerland: MDPI.
- Taylor, Keith W. 1983. *The Birth of Vietna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aylor, Philip (ed.). 2015. *Modernity and Re-enchantment: Religion in Post-revolutionary Vietnam*, ISEAS-Yusof Ishak Institute.